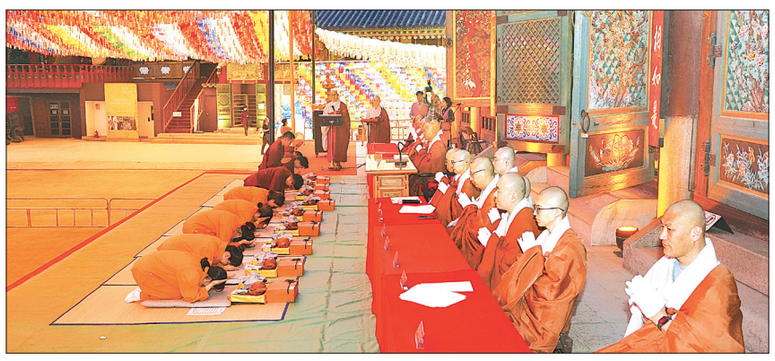
조계사, 청년·대학생 단기출가로 전법 확대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행자 9명 단기출가

5박 6일간 행자 생활 체험
예불·교육·정진·운력 등 나서
5월 5~10일 2차 출가 계획
조계사 봉축 대표행사 예고


조계사 청년 · 대학생 단기출가에 참여한 행자들이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고 있다.

윤호섭 · 이민우 기자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가 청년·대학생들의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젊은 세대를 향한 전법 확대에 나섰다.

조계사(주지 원명 스님)는 4월 29일 저녁 7시 대웅전 기단 앞에서 '불기 2568년 봉축 청년·대학생 발심출가' 입재식을 봉행했다. 청년·대학생 발심출가는 미래세대 전법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계사가 새롭게 기획한 5박 6일 여정의 프로그램이다.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된 1차 발심출가에는 남행자 4명, 여행자 5명 총 9명의 행자가 선발됐다. 만 19~30세인 행자들은 각각 △도광(박찬용) △심정(이한울) △세운(김성민) △청화(이재현) △법선행(이채윤) △일법행(김서현) △심일행(김연경) △문수화(윤석민) △능선화(박순빈)이라는 법명을 받아 행자로서의 첫 발을 뗐다. 다만 짧은 단기출가 이후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삭발의식은 머리카락을 일부만 잘라내는 약식으로 대신했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어린 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겨주고 출가한 청나라 순치황제(1638~1661)의 이야기를 소개한 뒤 순치황제가 출가할 때 읊은 시를 인용해 출가의 가치를 강조했다. 스님은 '세속의 100년 3만6000일보다 출가의 반나절이 더 낫다'는 뜻의 '백년삼만육천일(百年三萬六千日) 불급승가반일한(不及僧家半日閒)'을 설명하고 "오늘부터 6일간의 출가지만 하루의 삶이 10년, 100년의 삶일 수도 있다. 멋지고 아름다운 출가의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며 행자들의 출가를 허락했다.

행자들의 은사로는 조계사 부주지 탄보 스님, 템플국장 선해 스님, 신도부국장 지담 스님이 배정됐다. 스님들은 각각 3명의 행자들의 은사로서 6일간의 생활지도를 맡았다. 은사스님들은 출가를 결심한 행자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서로 좋은 도반으로서 여러분의 수승한 발원이 오래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부처님을 비롯해 은사스님, 부모님을 향해 삼배를 올린 행자들은 개인 평상복이 아닌 행자복을 입고 대승원력 10계에 맞춰 절을 올리며 행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행자들은 이튿날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108배 정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차담 시간을 가졌다. 진우 스님은 행자들에게 단기출가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물었다.

이채윤 행자는 "어머니께서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매주 새로운 불교 이야기를 전해주신다"며 "자연스레 불교에 관심도 생기고 어머니와의 대화 폭도 넓히고 싶어 단기출가에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서현 행자는 "5년간 일본에서 공부하다 올해 귀국했는데 진로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자들의 발심을 경청한 진우 스님은 "출가란 물리적인 집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라고 출가의 의미를 설명했다. 스님은 행자들에게 직접 염주를 채워주며 행자들의 수행과 미래를 응원했다.

불자대상에 최영철·고광록·구본길·임혁·김동준

5월 15일 봉축법요식서 시상


최영철 작곡가 | 고광록 변호사 | 구본길 펜싱선수 | 임혁 배우 | 김동준 배우

조계종 불자대상선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가 불기 2568년도 불자대상 수상자로 최영철 작곡가, 고광록 변호사, 구본길 펜싱선수, 임혁 배우, 김동준 배우를 선정했다.

최영철 작곡가는 법회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삼귀의, 사홍서원을 작곡하고 약 200여 곡에 달하는 찬불가를 작곡해 불자들의 신심 고취를 이끌어 온 불자다. 또한 전 대전 관현악단, 충남대 관현악단과 향음 관현악단 지휘자이자 한국음악협회 충남지부장, 한국관악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2022년에는 제6회 불교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고광록 변호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제4교구본사 월정사 신도회장을 역임하며 신도회를 화합으로 이끌었다. 특히 2020년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지본처 범도민환수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2022년 제393회 국회 본회의에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가결을 이끌어 오대산으로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가 환지본처 되는데 기여한 바 있다.

구본길 펜싱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국가대표 펜싱선수로 금메달을 수상했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때마다 "불자로서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인터뷰를 통해 불자선수임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특히 구본길 선수의 어머니 선태복 불자는 건강이 불편할 때도 매일 새벽 2시에 갓바위에 올라 아들을 위해 108배를 하며 기도를 올릴 정도로 매우 큰 불심을 보이는 신행 생활을 해왔다.

임혁 배우는 포교원 연예인전법단 연예인분과 회장으로 불자 연예인들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공연과 포교활동을 하며 공덕을 쌓고 있다. 올해에는 포교원에서 진행하는 '리딩 불교성전' 녹음에 직접 참여해 음성포교에 앞장섰다.

김동준 배우는 가수 '제국의 아이들' 출신으로 무대에서 불교 만(卍) 자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등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해 오고 있으며, 부모님과 부산 소재 사찰을 다니며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로 활동하며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서 현종 역할로 출연해 현종의 어린 시절 스님 역할을 위해 삭발을 하는 등 국민에게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기여했다고 전해진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5월 15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된다. 이민우 기자

비구니부 신설…비구니 역량 확대

태고종, 임시중앙종회서 의결
승려법, 징계법 차기회의 이월

태고종이 총무원 내 '비구니부'를 신설하고, 비구니 역량 확대에 나선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는 4월 30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51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했다. 56명 중 48명이 참석해 성안된 종회에서는 △종법 개정 △총무원 부장 임명동의 △제6대 원로의원 선출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종법 개정 안건에는 총무원장이 발의한 총무원법, 승려법, 규정업무처리에 관한 법이 상정됐으나 총무원법 개정안만 가결됐다. '선득도 후교육' 조항이 폐지를 골자로 한 승려법과 징계 관련 조사를 3개월 이내에 처리토록 한 규정업무처리에 관한 법은 수정·보완을 이유로 차기 회기로 이월했다.

총무원법 개정에 따라 태고종 총무원에 '비구니부'가 신설됐다. 신설된 비구니부는 △비구니 지원 및 관리 △비구니 포교업무 △비구니 의제 및 품위관리 △비구니 징계조사 등을 관장하게 된다.

태고종은 "사회에서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종단에 이런 추세에 발맞춰 비구니회의 결속을 더욱 확충하고 비구니스님들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 비구니부를 신설하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육부대중의 세분화된 동력이 종단 발전과 신도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태고종 중앙종회는 총무원 홍보부장 서리 탄묵 스님과 신설된 비구니부장 서리 현담 스님의 임명 동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제6대 원로의원으로 운설호명(서울강북)·지상 법경(서울동부) 스님 등 19명을 선출했으며, 불기2567(2023)년 세입세출 결산 수입지출 49억4973만원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했다. 신중일 기자

금산사 주지후보 화평 스님 선출

덕산 · 일원 스님 사퇴로 막판 단일화 이뤄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후보에 화평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금산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0일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후보인 화평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당초 후보로는 화평 스님을 비롯해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과 현 주지 일원 스님이 출마하며 3자 구도를 형성했지만 28일 일원 스님이, 29일 덕산 스님이 사퇴하면서 막판에 단일화를 이뤘다.

이날 화평 스님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 혜민 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 화평 스님은 "당선의 기쁨보다 전북불교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은사이신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유지인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이어 "금산사 사부대중의 뜻을 받들고 약속한 정책을 실행하면서 교구의 화합과 발전, 나아가 전북불교와 한국불교의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회와 소통하고 대중과 화합하는 승가공동체 구현을 위해 교구 공영제를 시행해 신뢰받는 전북불교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화평 스님의 주지 임기는 오는 6월 17일부터 4년간이다.

화평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월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3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7교구 금산사 교무국장 등 교구 내 주요소임을 맡아왔다. 익산 심곡사 주지,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제16·17·18대 중앙종회의원을 3연임했다. 현재 전주 서고사 주지, 조계종 환경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